

목양 칼럼

볼리비아 단기선교를 통한 하나님 체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볼리비아 단기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2003년에 볼리비아 단기선교를 시작한 이래 금년 2023년은 볼리비아 단기선교 2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즈는 단기선교를 가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백두산과 한라산을 합쳐놓은 고산이라 산소부족으로 인한 호흡 곤란, 두통, 구토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가 거친 도로 환경, 매연, 먼지 등은 방문하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윤도근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5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 바로 해발 4,500미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했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선교 패턴은 구원 사역, 의료 사역, 그리고 선물 사역의 세 가지 순서로 구성됩니다. 구원 사역은 기도, 선교팀 찬양, 유스그룹 판토마임, 설교, 중보기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의료사역은 현지 의사 3인을 고용한 의료 및 약품사역, 안경사역, 미용사역, 그리고 유스그룹의 VBS 사역 등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선물 사역은 모든 사역을 마친 후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선물을 담은 작은 백팩을 줍니다. 그리고 사역의 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침 QT와 저녁 영적 저널(spiritual journey)을 갖습니다.

이번엔 첫날 해발 4500m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350명을 섬겼습니다. 둘째 날은 해발 4300m의 생수교회에서 800명을 섬겼습니다. 셋째 날은 해발 4150m의 갯세마네교회에서 400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해발 3850m 임마누엘교회에서 소망교회와 연합으로 800명을 섬겨 총 2350명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흔히들 “참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더 사려깊게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 좋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매일 사역을 마친 후 저널시간의 나눔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순절 때처럼 언어가 통하지 않는 현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 주는데 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2.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모를 때, 사역을 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사랑과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3.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평소에 소심하던 성격이었어도, 현지인 앞에서 담대히 찬양하고 판토마임을 하며, 설교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이른들 앞에서 한국말로 식사기도를 하는 등 여러 경험들을 통해 믿음의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4. 유스그룹이 열심히 사역하다 한 사람씩 지칠 때,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5. 선교를 떠날 때의 생각과 선교를 마치고 돌아 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뀐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현지인을 도와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감사하는 현지인들에게 오히려 감사와 겸손을 배우고 온 미션이었습니다.

정기모임 안내

집회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요일-토요일)	본당
목장모임	오후 8:30 (매월 셋째 금요일)	각 목장별로
제자훈련	각 동반자별로	각 동반자별로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5세 이하)	오전 11:00
	유년부 (1-6학년)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모임 오후 07:30 (금요일)
Silver Club	목요일 오전 10:00- 오후 2:00	친교실
Mommy & Me	금요일 오전 10:00-11:30	유치부 예배실
뉴욕예일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00-12:00	교육관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VISION 2023 DISCIPLESHIP MARCH

뉴욕예일장로교회

표어: 예수님 제일
(마 16:16)



- 영감있는 예배
- 십자가 사랑의 교제
- 땅끝까지 복음전파
- 천국일꾼 훈련양성
- 이민가정의 치료
- 능력있는 기도 생활

담임목사 김중훈
Senior Pastor: Rev.
Jong Hoon Kim, D.Min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 1180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https://YaleChurch.org>

주일예배		제 32권 30호 주후 2023년 7월 23일	
예배 시간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인도자	김민목사	백에스라목사	우영주목사
예배의부름	인도자 (요 4:24)		
예배 기원	인도자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		
찬송	298장		
기도	라용재집사	김근태장로	김두성장로
성경봉독	롬(Ro) 8:31-39		
찬양	할렐루야	글로리아	할렐루야
말씀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김중훈목사		
찬송	304장		
봉헌	630장		
예일 소식	인도자		
찬송*	635장		
합심기도*	다같이 (감사/결단/축복)		
파송의 말씀	인도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도*	김중훈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수요예배 (3선교회 헌신예배) 7월 26일 오후 8:30

- 기도: 오세일집사
- 말씀: 김중훈목사
- 다음주 기도: 구본원권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 말씀: 김중훈목사

다음 주일 기도

- 1부: 김민수집사
- 2부: 정수영장로
- 3부: 김동환장로

7월 안내위원

- 1부: 예배부
- 2부: 하덕순권사
- 3부: 홍재익집사, 정경자권사

예배 및 헌금 안내

-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 **수요예배:** 3선교회 헌신예배
- **예배 전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못 오시는 분은 우편 혹은 Venmo 이용
Address: 17 New South Rd. Hicksville, NY11801).
Pay to order: Yale Church or Yale Presbyterian Church.
Venmo: venmo@YaleKM, CCM Venmo는 @YaleCCM입니다.
- **영아/유치부 PTA Meeting:** 7/23 (오늘), 오후 12시 45분, 모자실.
- **교사 격려 BBQ:** 7/23 (오늘), 오후 3시, 친교실. (섬김: 전용수장로)
- **7월목장예배:** 7/28 (금), 오후 8시 30분, 각 목장별로
* 7/26 수요예배 후 마을지기, 목자, 총무모임 및 목장교안 배부
- **선교회월례회:** 7/30(주), 3부예배 후, 각 선교회별로
- **7월 성경 통독 및 다독자 보고:** 각 목장별로, 8/2(수)까지
-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시간 및 장소: 9/10 (주) 오후 5시, Madison Theatre, Molloy University
1000 Hempstead Ave, Rockville Centre, NY 11570
- **강단 꽃 장식 및 사랑의 식탁**
- 강단 꽃: 김명숙권사(Brenden 생일), 구속자권사(남편생일)
- 사랑의 식탁: 구속자권사(남편생일)
- **식사기도 담당자 및 식당봉사**
- 식사기도: 이번주: 송광수장로 다음주: 최영진장로
- 식당봉사: 이번주: 3마을 다음주: 4마을
- **동시통역:** Live English interpretation for sermon is available
11am Service Only. Zoom QR Code: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 8:26-30)

1.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26절).
 - 1) 인간은 연약하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인생은 질그릇이라고 했다(고후 4:7).
 - 2) 어느 면에서 연약한가?
신체적: 병에 약하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기도 한다.
정신적: 작은 일에도 마음 상하고 잠 못 이룬다. 의지력이 약해 결심한 것이 잘 깨어진다.
영적: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 영적 연약함은 감기처럼 모든 연약함의 뿌리이다.
예) 갯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의 기도 실패(마 26:40-41).
 - 3)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뜻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을 돕거나 하나가 되어 붙든다는 뜻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신다.
그나마도 할 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신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눅 22:31-32).
2.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 1) 이 말은 믿는 자는 만사형통한다는 뜻이 아니다. 막연히 잘 된다는 말도 아니다.
 - 2)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29-30).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믿는 자) 곧 그 뜻(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름심의 과정과 목적은 무엇인가?
미리 아시고(엡 1:4), 아들의 형상 본받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모태로부터 혹은 나중예), 의롭다 하시고(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영화롭게 하신다(5개의 황금 체인).
그러므로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들이 형상 본 받고 영화롭게 하시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선이 아니다. 아무리 내게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져도 위의 목적을 이루면 선이다.
예) 병을 앓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면 선이다. 죄를 짓고 마음에 걸려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면 죄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찬송가 273장의 의미를 새겨보라)
 - 3) 어느 어촌 이야기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왜 손해를 봐야 했는지. 왜 아팠는지? 왜 팬데믹이 왔는지? 그것들이 우리 구원과 성화와 영화와 관계된다면 잃은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룬 것이 된다.

[결론]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 어떻게 이겼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나? 약한대로 살지 말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자.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5개의 황금 고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자.

행사예고

- 08/20(주)-22(화) 유년부 수련회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 08/20(주)-24(목) 중고등부 수련회 (Tuscarora Inn & Conference Center, Mt Bethel, PA)
- 09/10(주) 창립 30주년 기념 메시아 찬양제

방송설교

- KRB FM 87.7 (라디오):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 Cablevision Ch. 1156 (텔레비전): 주일 오후 9:00-9:30 (재방송, 월요일 오전 6:30-7:00) CTS
- Direct TV Ch. 2092 (텔레비전): 주일 오후 8:30-9:00 (재방송, 월요일 오전 9:30-10:00) CTS